

지방도시 도시재생 사례를 통해 본 경관계획 요소의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ying Landscape Planning Elements Through Urban Regeneration Cases in Local Cities

김 성 호*
Kim, Seongho

신 병 욱**
Shin, Byeonguk

이 옹 구***
Lee, Woonggu

Abstract

Article 6 of the Landscape Act stipulates that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stablishes a basic landscape policy plan every five years in order to create a beautiful and pleasant landscape, discover and support excellent landscapes.” This is a comprehensive plan for landscape policy, a national plan that presents basic directions and strategies for the formation and continuous management of excellent national landscape. The basic landscape policy plan is a plan established every five years. It is an action plan that establishes a medium-term strategy for landscape policy and proposes specific implementation plans. Landscape-related policies are established in various fields, such as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and are based on mutual cooperation. Local cities voluntarily establish basic landscape plans, but in terms of integration, there are few cases in connection with urban regeneration. However, when the existing city establishes the basic landscape plan, the effect will be doubled if a new city is comprehensively constructed in relation to urban regeneration from the overall aspect of the cit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ovide data so that a master landscape plan can be established by analyzing and synthesizing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city centering on Jeonju, a representative local city.

주 요 어 : 지방도시, 기본경관계획, 도시재생, 경관계획

Keywords : Local City, Basic Landscape Plan, Urban Regeneration, Landscape Plan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경관계획에서 경관이란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자연환경적 특징으로 경관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관리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데 제정배경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관법 제6조인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조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규정은 경관정책에 대한 종합적 계획으로써, 우수한 국토경관 형성 및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국가계획이다. 경관정책기본계획은 5개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는데 경관정책의 중기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제시하는 실천계획이다. 경관 관련 정책의 수립 주체는 중앙 및 지방정부와 민간 등 다양한 분야인데 상호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

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말하며 도시재생법에서는 도입배경에 대하여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에 배경을 두고 있다. 1)이를 바탕으로 최근 조경 및 경관계획 분야에서는 기존의 도시설계분야까지 확장해 나가려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었으며 랜스케이프 어바니즘, 이콜로지컬 어바니즘 이론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관을 후기 산업도시의 재생을 구상할 매체로 보고자 하는 움직임이며 부지의 특수성 발견을 통한 지역적 가치 회복으로 형성되었다. 기존에 모더니즘 건축이 보편주의는 결과적으로 건축에 있어서 지역적 차이를 거부하고 동질화 현상을 수반하여 도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이러한 상황에서의 경관개념은 지역적 가치에 대한 건축적 접근이라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지역적 생태학적인 환경에 대한 관심, 세계적인 통신과 서비스 경제로의 변화를 수반하는 탈산업화의 과정과 대지예술의 출현같은 경관계획적 측면을 나타내었다. 특히 대지예술에서 경관은 작품을 위한 표현의 재료로 풍경이라는 전통적 의미에서 사건들이 현상으로 발생하는 물질의 장으로 바뀌었다.

지방도시는 자발적으로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통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강사, 공학박사

*** 인천재능대학교 실내건축과 교수,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Incheon Jaeneung University, mylee5277@naver.com)

1) 강효정, 최재필,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주요 개념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 회논문집, 27(8), 2011.

합적인 측면에서 도시재생분야와 연계한 사례들은 적은 편이다. 그러나 기존 도시가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새로운 도시를 구축한다면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표적인 지방도시인 전주를 중심으로 기존 도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도시재생과 기본경관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경관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과 경관정책의 기본목표와 바람직한 국토경관의 미래상 정립에 관한 사항 국토경관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사회기반시설의 통합적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우수한 경관의 보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경관분야의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그밖에 경관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다.²⁾ 이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지방도시는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주기도 하고 많은 효과를 거두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범위는 이미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 대표적인 지방도시인 경기도의 수원시, 안성시, 구리시, 경상도의 부산시, 충청도의 대전시 등에 대한 기본계획 분석과 전라북도의 전주시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특히 전주시를 중점적인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전통도시인 전주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는 이들 도시가 지방도시 중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한 대표적인 도시이고, 도시의 성격이 도시재생과정에서 경관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Table 1. Local city basic landscape plan

지역별	구분	내용	수립년도
경기도	수원	기본경관계획	2020
	구리	기본경관계획	2020
	안성	기본경관계획	2018
경상도	부산	2030 부산광역시 경관계획	2017
충청도	대전	2025 대전광역시 경관계획	2015
전라북도	전주	2021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2018

또한 지방도시 경관계획을 바탕으로 기본경관계획과 도시재생과 연계한 경관계획의 요소를 유형화하고 발생한 문제점들을 확인하였다. ³⁾ 선행연구에서는 위와같은 법적내용을 지구단위계획에서 하위개념으로 5개 항목을 도출하였고 경관설계지침에서는 10개의 항목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건축물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색채 오픈스페이스 항목을 도출하였고 경관설계지침에서는 경관축형성, 권역별 경관, 건

2) 국토교통부,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 2019, p.1.
3) 금윤진, 도시재생사업의 경관 계획요소 도출 및 중요도 분석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2020, 석사학위 논문, pp.29-33.

축유형 색채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안내체계 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주요결절부 및 랜드마크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경관계획요소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제안하였고 문제점 해결방안을 기술하였다.



Fig. 1. Method of study

2. 도시재생 개념 및 사례

2.1 도시재생 개념 및 요소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말하며 도시재생은 도시개발과 다르게 지역의 장기적인 도시성장 동력을 만드는 장소 중심적, 지역 자력적 활동으로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경관계획이란 도시 및 지역을 포함하는 모든 규모의 경관에 대한 계획을 말하며 주로 시각에 대한 계획을 말하고 도시의 시각적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포괄적 계획이다. ⁴⁾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를 구분하는 기준 또한 매우 다양하다.

Table 2. Elements of urban landscape

분류	도시경관의 구성요소
물리적 비물리적관점	• 물리적 요소 : 자연적요소, 복합적요소, 인공적요소 • 비물리적요소: 인위적 요소 형태적요소
규모의 관점	• 광역적 경관, 도시적 경관, 지구적경관
대상의 성격에 따른 관점	• 자연녹지 경관, 도시축 경관, 시가지 경관
조망에 따른 관점	• 조망형 : 주체와 시각적 지각적 대상과의 상호관계에 의한 구분으로서 산, 바다, 강, 호수 시가지의 야경과 같이 특징적 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경관 • 환경형 : 각각의 지역 안에서 주체를 포함한 주변 환경이 보여주는 경관

선행연구는 도시재생과 도시 경관 관련 연구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금윤진은 도시재생사업에서 경관 계획요소 중요도를 분석하였으며 이수현은 도시재생사업에서 경관계획 요소에 대한 인식도를 검토하였다. 강효정 최재필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개념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4) 이수현, 도시재생사업의 경관 계획요소에 관한 인식도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2019, 석사학위 논문, p.11.

2.2 수원시 경관계획

수원시 기본경관계획⁵⁾은 수원시가 지리적으로 한남정맥의 자연생태계 중심인 점을 고려하여 자연생태경관권역을 중심으로 수립하였다. 그리하여 권역을 개발사업권역, 원도심권역, 신시가지권역으로 개념을 설정하고 ‘서부, 중심, 동부시가지 중심’으로 기본권역을 설정하였다. 또한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역사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역사문화경관권역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경관권역별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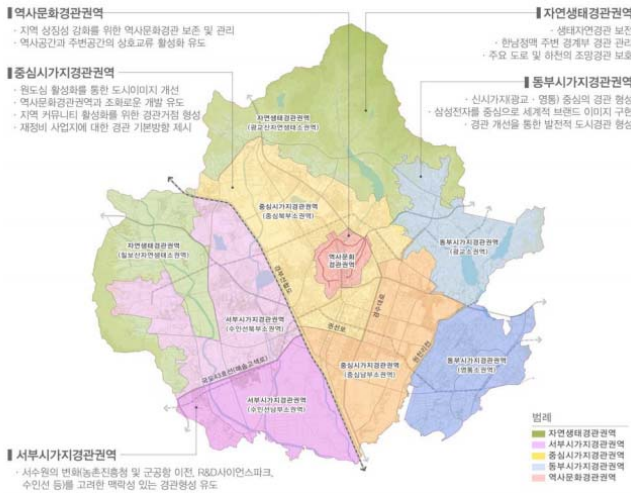


Fig. 2. Suwon City Landscape Area Plan

자연생태경관권역(광교산자연생태소권역)은 광교산 주변 취락지의 경관정비를 통한 자연과 도시의 조화로운 경관을 연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영동고속도로의 주변의 인공경관을 개선하였고 지지대비 비석과 효행공원 등 역사문화경관자원의 주변경관 개선을 통한 장소성을 제공하였다.

자연생태경관권역(칠보산자연생태소권역)은 주요 배경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칠보산 조망을 고려하고 전체적인 도시의 조화로운 경관을 연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황구지천의 개방감 있는 조망경관을 보호하고 수변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서수원 IC 및 국도 42호선 서부 진입경관을 형성하였다.

서부시가지경관권역은 신규개발 예정지의 경관 형성내용으로 주변 도시와 조화로운 경관형성을 유도하며 황구지천 및 서호저수지의 조망경관을 보호하고 주요 경관자원(여기산, 하천, 저수지 등)과 연계한 경관 형성을 유도하였다. 또한 농촌진흥청 이천지와 군 공항 이천지의 경관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중심시가지경관권역은 기존시가지들의 경관 정비를 통한 노후이미지를 개선하고 정비구역(재개발, 재건축 등)과 개발 예정지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한 경관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인지도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물의 부정적인 경관을 정비하였다.

동부시가지경관권역은 기존 영통시가지와 광교시가지의 지속적인 경관 개선을 통한 명품 주거 공간 형성, 광교신도시의

5) 수원시청, 수원시 기본경관계획, p.4.

수변경관(원천, 신대저수지)과 조화된 친수경관 형성하고 삼성전자의 첨단산업단지 이미지 강화 및 대표성을 부각하였다.

역사문화경관권역은 세계문화유산의 명소성을 부각하면서 역사적 경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수립하였다. 그리하여 역사문화경관과 조화로운 시가지 경관을 형성하고 역사문화경관을 저해하는 부정적 시설물의 경관 정비를 실시하였다.

Table 3. Basic direction by landscape area

경관권역	경관소권	권역별 기본방향
자연생태경관권역	광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교산 주변 자연과 조화로운 경관 형성 • 환경친화적인 전원경관 연출
	자연생태소권	
	칠보산 자연생태소권	
서부 시가지경관권역	수인선 북부소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 예정지와 주변 지역의 조화로운 경관형성 유도 • 황구지천 및 서호저수지의 조망경관 보호
	수인선 남부소권	
	중심시가지경관권역	
중심 시가지경관권역	중심북부소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시가지의 낙후된 도시 이미지 개선 • 부정적인 경관자원 정비
	중심남부소권	
동부 시가지경관권역	광교소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징성 있고 품격 있는 시가지 경관 형성 • 광교·영통시가지의 지속적인 경관 개선
	영통소권	
역사 문화경관권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화성의 역사문화경관 강화

2.3 구리시 경관계획

구리시 기본경관계획⁶⁾의 추진전략은 ‘도시가 향유하는 감성 도시’로 설정하고 기존의 도시 이미지와 더불어 역사도시를 테마로 설정하였다. 그리하여 ‘선인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이야기가 있는 도시경관 만들기’와 ‘친환경도시’, ‘지속 가능한 녹색 자연과 푸른 수자원을 만끽하는 아름다운 경관의 도시 만들기’로 권역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적에서 실질적으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가치를 새로운 이미지로 만들어 내는 전략을 구형하였다. 또한 친환경도시와 시민중심의 도시로 시민의 교류를 중시하고 풍요로운 삶을 지향하는 ‘소통하는 경관만들기’를 이루고자 하였다. 즉, 도시의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는 전략을 구축하여 잠재하고 있는 도시의 이미지를 창출하며 신문화도시로의 도시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매력적인 도시를 형성하는 ‘개성 있는 경관 만들기’를 구현하였다.

동구릉 역사자연경관 조성권역은 구리의 역사문화 및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으로 동구릉 일대를 역사자연경관 중점관리구역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중앙선-구리역 일대를 ‘도시침해도경관 중점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철도 경관을 개선하여 역세권의 문화거점경관을 형성하고 철도변 환경개선을 시도하였다. 아차산 역사자연경관권역은 구리의 역사문화 및 취락경관을 보전 관리하기 위한 지역으로 아차산 일대가 해당된다.

6) 구리시청, 구리시 기본경관계획

Table 4. Guri-si Basic Landscape Area Plan

중점관리구역	경관 관리 대상	중점유도항목
역사·자연경관	동구릉 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릉지 및 산림경관의 조망관리 • 산림지역 내 취락지의 건축물 외관 관리 및 시설물관리
	아차산 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차산, 아차산 보부군, 한다리, 아치울 고구려 대장간 마을 • 구역 내 문화재시설 및 안내시설 정비 및 접근로 관리 • 이용자를 위한 공간 정비 • 구리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역사자원으로서의 위상강화
도심철도경관	중양선-구리역 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외관 관리 및 건축선 후퇴를 통한 개방감 확보 • 일관성 있는 옥외광고물 정비 • 전철역을 거점으로 주변지역을 여가문화공간으로 재정비 • 걷기 편한 보행환경 조성 • 철도 하부공간을공원화하여 녹지축 조성
	중양선-구리역 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외관 관리 및 건축선 후퇴를 통한 개방감 확보 • 일관성 있는 옥외광고물 정비 • 전철역을 거점으로 주변지역을 여가문화공간으로 재정비 • 걷기 편한 보행환경 조성 • 철도 하부공간을공원화하여 녹지축 조성
도심가로경관	경춘로 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에 대한 경관디자인 사업 및 정비사업 추진 • 가로 주변 건축물 경관에 대한 관리 • 가로변 전선지중화사업 시행 • 옥외광고물의 정비 및 관리 • 경관조명의 도입으로 주·야간 특색있는 경관 연출
	장자대로 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개토대왕 광장 • 장자호수 공원 일대
수변경관	왕숙천변 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水)거점들의 연결을 통한 수변경관 네트워크 형성 및 장자호수공원 대규모 호수공원화 사업과 연계 • 하천과 저수지, 공원을 연결하는 산책로, 자전거도로 조성 • 한강 이남 및 남양주에서 조망되는 수변 스카이라인 관리
	한강시민공원 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시민 공원, 장자호수 공원, 아천생태습지

한강 수변 경관은 공공의 친수공간 및 수변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지역으로 한강시민공원에서 장자호수공원 일대가 해당된다. 경춘로 도심 가로 경관은 도시중심가로 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지역으로 경춘로 일대가 해당된다. 왕숙천 수변 경관은 왕숙천 수변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지역으로 왕숙천변 일대가 해당된다. 장자대로 도심 가로 경관은 도시중심가로 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지역으로 장자대로 일대가 해당된다.

2.4 안성시 경관계획7)

안성시가지 경관계획은 기존 안성시가지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으로 시가지 외곽으로 산업단지 등 도시적 용도와 평야가 공존하고 있는 지역이다. 시가지와 접하여 북측에 비봉산 도시자연공원이 입지하고, 시가지 남측으로 안성시의 대표 하천인 안성천이 동에서 서로 흐르고 있다.



Fig. 3. Anseong City Basic Landscape Plan

‘아름답게 디자인 된 행복맞춤도시’로 목표를 설정하고 도시의 보전방안으로 시가지 내외부 산림녹지 경관을 보전하고 시가지내 수변 축을 중심으로 경관을 보전하고 있다. 관리방안으로는 살기 좋고 조화로운 시가지 경관관리, 도로를 따라 흐르는 안성의 경관축과 농경지와 시가지 연접부 경관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경관개선을 통하여 차별화된 도시문화를 창출하고 공공예술경관을 형성하는 한편 다양한 테마를 담은 도로경관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도시문화와 연계된 친수경관을 형성하고 대학문화의 중심 경관형성을 하고자 하였다.

공도시가지 경관권역은 경부고속도로와 국도38호선 등 도시의 주요 진출입 관문이 입지한 지역이며, 서쪽으로 평택시와 접하고 있는 지역이다. 안성시의 주요 관문경관 거점(서안성IC, 송탄IC, 안성IC)이 입지하고, 주요 도로에서 조망되는 전원풍경과 점적으로 분포하는 인공건축물이 주요 경관요소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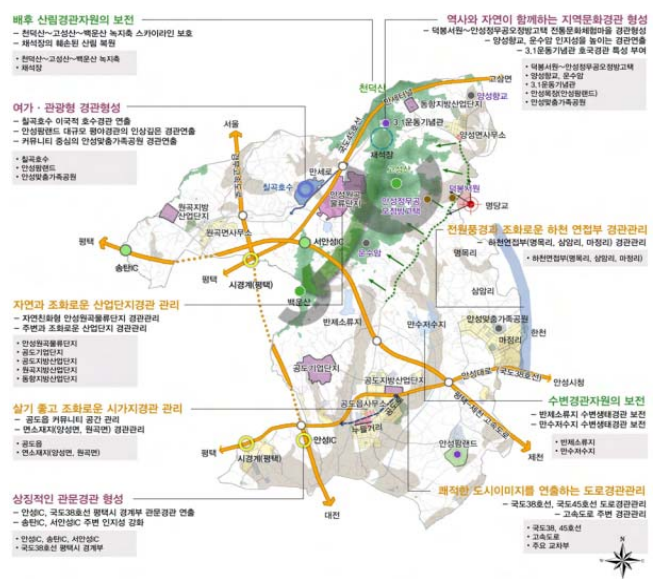


Fig. 4 Anseong gongdo District Basic Landscape Plan

7) 안성시청, 안성시 기본경관계획, pp.96-118.

‘자연풍경과 조화로운 행복맞춤도시’의 완성을 목표로 배후 산림경관자원의 보전과 수변경관자원의 보전을 중심으로 한 보전방안과 살기 좋고 조화로운 시가지경관 관리와 자연과 조화로운 산업단지경관 관리, 전원풍경과 조화로운 하천 연결부 경관관리와 쾌적한 도시이미지를 연출하는 도로 경관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고나리방안을 설정하였다. 그리하여 역사와 자연이 함께하는 지역문화경관을 형성하는 한편 여가 관광형 경관을 형성하여 상징적인 관문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Fig. 5. Anseong Eastern landscape District Basic Landscape Plan.

동부 경관권역은 서측으로는 자연경관권역과 접하며, 북으로는 용인시, 동으로는 이천시, 남으로는 음성군(마이산, 백운산)과 접하여 있다. 또한 청미천이 북서쪽에서 동으로 흐르며, 권역의 북동지역을 구분하고, 죽산천이 죽산시가지에 접하여 서에서 동으로 흐른 다음 청미천에서 합류하고 있다. 권역의 중심부는 국도 38호선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죽산시가지, 일죽시가지가 권역이다. 권역은 비교적 낮은 산지와 농경지역이 주요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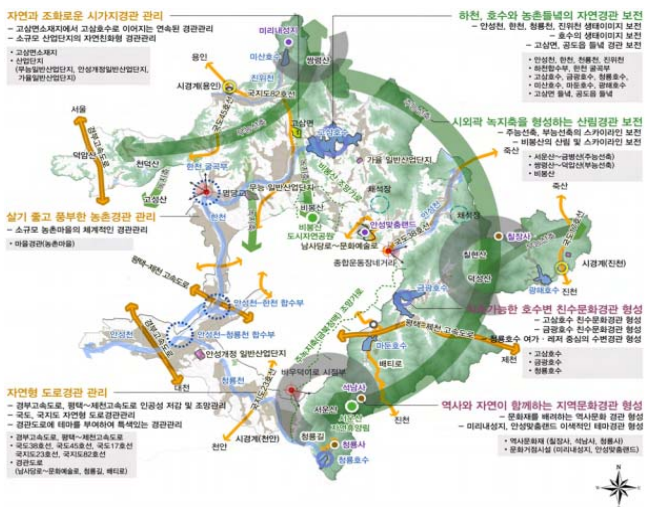


Fig. 6. Anseong nature landscape District Basic Landscape Plan.

‘문화예술이 숨 쉬는 행복맞춤도시’는 보전방안으로 시가지의 배경이 되는 산림경관을 보전하고 하천과 호수의 수변경관을 보전하고 있다. 관리방안으로는 전원풍경과 조화로운 시가지경관 관리와 시가지 연결부 농촌경관 관리가 이루어지며 전원형의 자연친화적 도로경관관리가 이루어진다. 형성 방안으로 역사와 자연이 함께하는 지역문화경관을 형성하고 보행자를 고려한 친수문화경관을 형성하며 자연친화적 관문경관을 형성한다.

자연 경관권역은 안성의 주요 시가지(공도, 안성)를 둘러싸고 있는 외곽지역으로 서운산, 칠현산, 금병산, 천덕산 등 도시 외곽의 환상형 녹지축과 그에 접하는 지역으로 자연경관이 우세하여, 자연경관의 보전적인 관리가 중요한 지역이다. 자연 경관권역에는 산림과 어우러진 양호한 호수경관지역(청룡호수, 금광호수, 고삼호수 등)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의 자연경관의 관리 및 경관과 어우러진 농촌경관의 정비도 필요해 보인다.

‘자연이 스며드는 행복맞춤도시’로 보전 방안은 시 외곽 녹지축을 형성하는 산림경관을 보전하며 하천, 호수와 농촌들녘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있다. 관리 방안으로는 자연과 조화로운 시가지 경관 관리와 살기 좋고 풍요로운 농촌경관 관리, 자연형 도로경관 관리가 있다. 실천방안으로는 역사와 자연이 함께하는 지역문화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2.5 부산시 경관계획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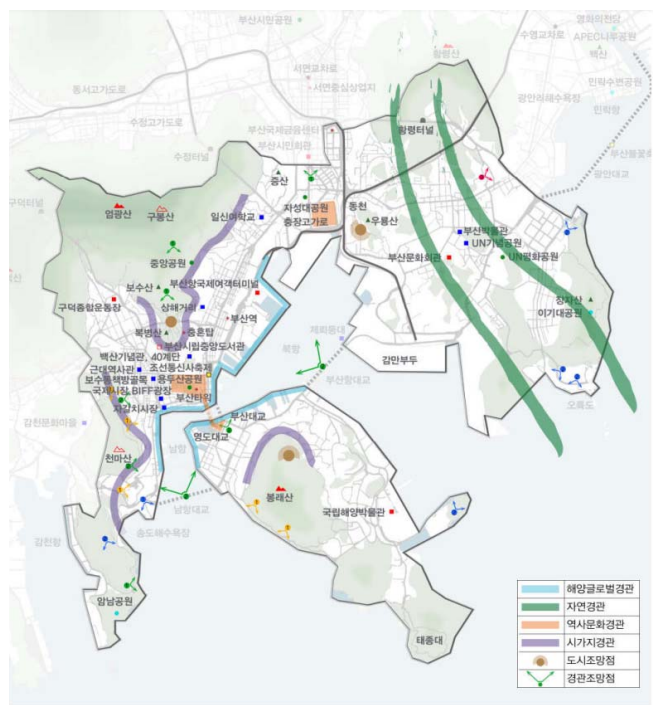


Fig. 7. North/South port plan

북항/남항 권역은 해양글로벌 경관, 원도심의 특성 경관을 증점 관리하여 부산다운 중심시가지형 도심 수변경관을 창출하는

8) 경관권역계획, 2030 부산광역시 경관계획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본방향은 원도심과 도심해안의 조화로운 경관 형성을 통한 부산의 이미지 강화, 부산 원도심의 정체성 확립과 경관 특성의 유지 및 관리하고 해양글로벌 경관 조성을 통한 부산의 관문경관 형성으로 방문하고 체험하기 쾌적한 도시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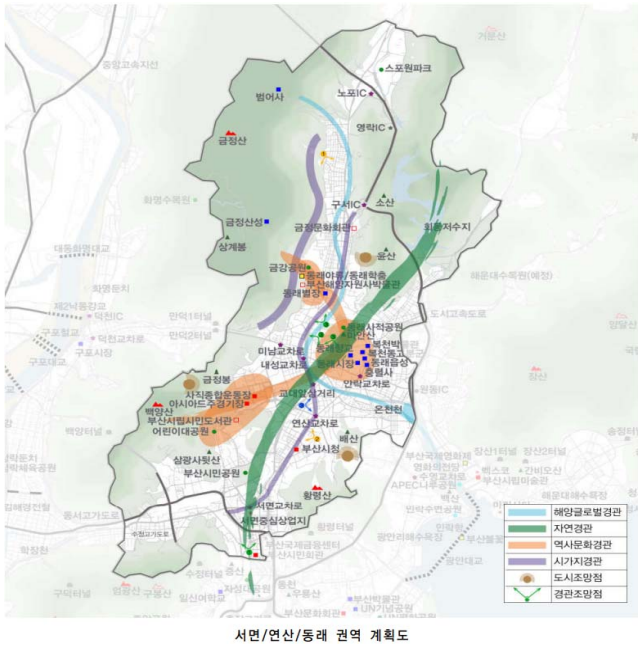


Fig. 8. Seomyeon/Yeonsan/Dongnae area plan

서면/연산/동래 권역의 목표는 도심지 가로경관 및 생활경관을 중점 관리하여 에메니티 확보를 통한 내륙형 도심지 경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은 부산 내륙의 자연성 회복을 통한 도심지 자연환경 개선으로 부산의 산, 바다, 하천의 연계를 통한 자연경관의 복원 및 확대 역사문화 및 시가지경관 개선을 통한 생활밀착형 에메니티를 확보하는 것으로 지역별 역사, 문화, 시가지특성을 반영한 도심지 경관을 조성하였다.



Fig. 9. Haundae/Gwangalli/Songjeong area plan

해운대/광안리/송정 권역은 해양 관광·주거 경관 및 자연·문화 경관을 중점관리하여 부산을 대표하는 상업지형 해양·자연 경관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기본방향은 해안별 특화된 도심해수욕장 경관을 형성하고 관광, 생활문화, 레저 등 지역성을 반영한 해수욕장 경관 조성, 부산을 대표하는 해양경관의 형성과 보전, 고유한 자연 경관을 보전 하고 지형지세를 고려한 경관 조성을 유도하였다.

강동/명지 권역의 목표는 산업경관 및 신규 개발지역 경관을 중점관리하여 미래를 이끄는 해양산업단지의 특화 경관을 유도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은 지역산업과 자연환경이 조화로운 경관 조성을 하는 것이고 다양한 신규 개발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산업경관을 형성하였다. 또한 생태보전을 통한 자연 친화적 경관을 형성하는 것으로 낙동강의 자연생태 보전과 지역민이 상생할 수 있는 시가지 경관을 형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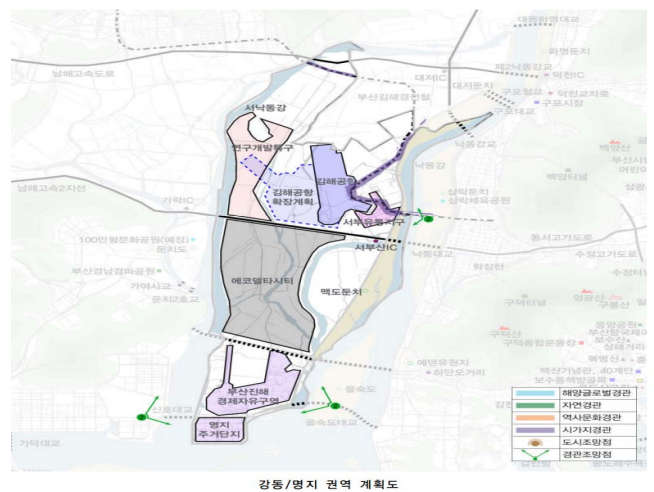


Fig. 10. Gangdong/Myeongji area plan

2.6 대전시 경관계획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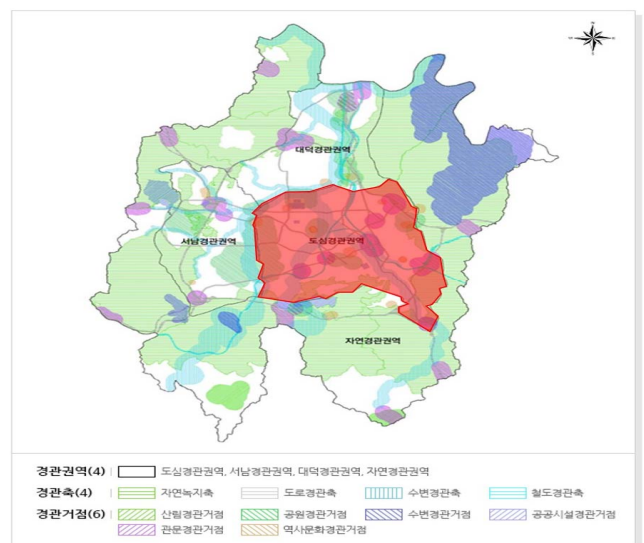


Fig. 11. Daejeon Cityscape Area Landscape Guideline

9) 경관권역계획, 2025 대전광역시 경관계획

대전 도심경관권역 경관가이드라인으로 시가지와 조화되는 자연경관 보전 및 이용활성화가 있으며 주요 조망점에서 보문산, 식장산, 계족산, 월평공원, 가양비래공원으로의 양호한 조망을 확보하고 보문산, 식장산, 계족산, 월평공원, 가양비래공원 등 시가지 주변 산·구릉지에서 조망되는 시가지 경관 관리 및 갑천, 유등천, 대전천, 대동천 등 대전의 주요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보전하고 하천 주변지역에 일상생활 속에서 이용 가능한 수변 경관과 여가공간을 형성하였다. 또한 주거·상업·업무·공업 지역 경관관리로 노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들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주민참여형의 다양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둔산도심, 기존 도심의 상업가로 저층부를 중심으로 가로 특성과 보행환경을 고려한 공공공간·시설물 디자인 및 지속적 정비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역사문화특성 강화로 독특한 매력과 특성이 두드러진 동춘당공원 일원, 기존 도심 일원, 우암사적공원 일원을 역사문화경관 중심지로 조성하였다. 역세권 경관개선을 통한 지역경관특성 강화 방안으로는 경부선, 호남선, 대전선 철도는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대전역 증축공사,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사업 등과 연계하여 철도 연접지역 노후 경관을 단계적으로 개선하였다. 가로별 경관특성 강화 방안으로 한밭대로, 계백로 계룡로, 동서대로, 대덕대로, 계족로, 대전로, 신탄진로 등 주요 간선가로 녹화 및 개방감 확보, 상징가로 조성 등을 통해 도심경관권역의 중심경관축으로 조성하였다. 또한 대전역, 서대전역, 대전 복합터미널, 서대전터미널, 대전IC, 판암IC를 중심으로 경관 정비를 통해 상징적인 관문경관을 형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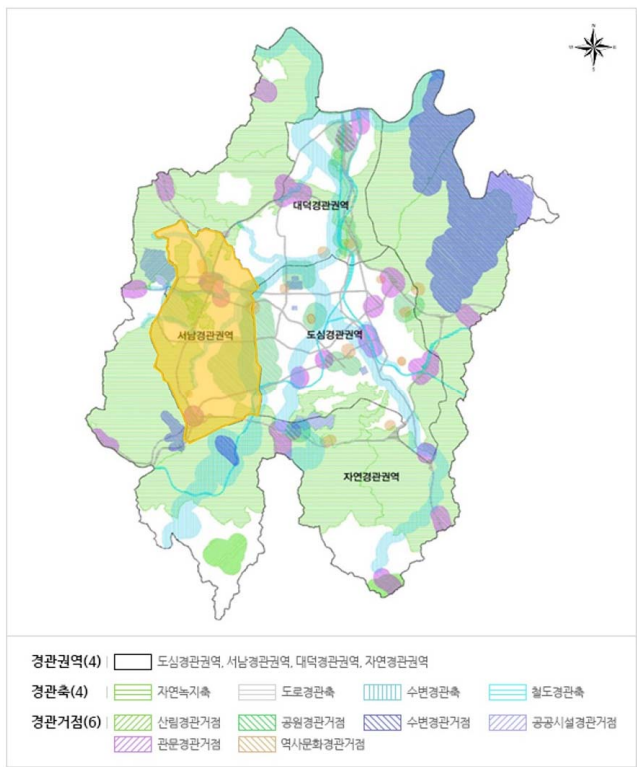


Fig. 12. Daejeon Southwest Scenic Area Landscape Guideline

서남경관권역 경관가이드라인으로 고유의 자연경관 보전 및 이용활성화가 있으며 주요 조망점에서 도덕봉, 빈계산, 갑하산, 신성봉, 구봉산, 월평공원, 복용공원으로의 양호한 조망을 확보하였고, 주변 산, 구릉지 조망을 고려한 개발이 되도록 유도하고 주요 조망점에 조망시설을 도입하였다. 또한 구봉산, 월평공원, 복용공원 주변으로 산·구릉지 조망을 보호하고 산림과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관리하기 위한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설정하였다. 월평공원, 복용공원, 도안공원, 유림공원 등 시가지 내 공원에 대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설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경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유성천, 반석천, 화산천, 진잠천 등 시가지를 관통하는 하천은 생태하천으로 보전하고 하천 주변 지역에 일상생활 속에서 이용 가능한 수변공간과 여가공간을 조성하였다. 지역 문화의 거점경관 창출 방안으로 유성온천문화공원~충남대학교~유림공원~갑천을 연결하는 축을 조성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매력적인 관광코스로 활용하였으며 대학문화의 거리는 대학문화, 상업문화, 지역 문화 등 기존 특성들이 살아있으며 주변 지역과 연계되어 매력적인 경관 특성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관형성사업과 관리 계획을 추진하였다. 가로별 경관특성 강화 방안으로 한밭대로, 동서대로, 계룡로, 계백로, 북유성대로, 대학로 등 주요 간선가로 녹화 및 주변 산, 하천으로의 조망축 확보, 상징가로 조성 등을 통해 서남경관권역의 중심경관축으로 조성하였고 유성IC, 서대전IC, 유성복합터미널(예정)을 중심으로 경관 정비를 통해 상징적인 관문경관을 형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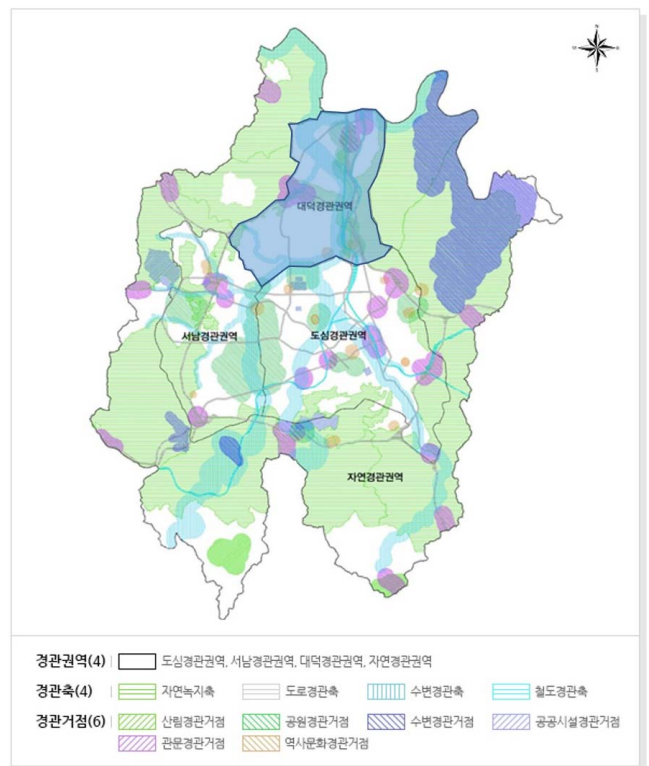


Fig. 13. Daedeok Landscape Area Landscape Guideline

대덕경관권역 경관가이드라인으로 고유의 자연경관 보전 및 이용활성화가 있으며 주요 조망점에서 계족산, 보덕봉으로의 양

호한 조망을 확보하고 금강, 갑천은 생태하천으로 보존하고 도로 구조물, 하천시설물의 인공적 이미지를 저감하였으며 관평천 탄동천 등 지류 하천은 생태하천으로 보전하고 하천 주변지역에 일상생활 속에서 이용 가능한 수변경관과 여가공간을 제공하였다. 대덕R&D특구 경관관리 강화로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주변 자연경관 특성과 어우러진 친환경 연구 단지 경관 특성을 유지·강화하였고 엑스포재창조 사업과 연계하여 과학을 접목한 특화된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경관을 중점 관리하였다. 대덕산업단지 등 공업지역 주변에 완충 경관을 조성하여 주변 지역과의 경관적 조화를 유도하였다. 시가지 경관개선 및 특화가로 형성 방안으로 상서·평촌, 신탄진 제정비 촉진사업의 개발계획 중 경관 부문 계획은 본 경관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며 실효성 있는 경관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역 거점 역세권인 신탄진역 역세권을 대상으로 가로환경 정비, 공공공간 확충 등 경관형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주요 관문지역, 도로축 경관개선 및 특성화 방안으로 신탄진로, 대덕대로 등 주요 간선가로 녹화 및 계족산, 갑천으로의 조망축 확보, 상징가로 조성 등을 통해 대덕경관권역의 중심경관축으로 조성하였고 신탄진IC, 북대전IC, 신탄진로 청주시 경계부를 중심으로 경관정비를 통해 관문경관을 형성하였다. 역사문화자원 보전·관리 방안으로 회덕향교 대성전, 승현서원지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경관형성과 관리를 통해 역사·문화 특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자연경관권역 경관가이드라인으로 고유의 자연경관 보전 및 이용활성화가 있으며 계족산, 식장산, 보문산, 구봉산, 계룡산, 금병산으로 이어지는 외곽의 산지경관 보전하고 장태산휴양림, 만인산휴양림을 중심으로 매력적인 여가형 산림경관을 형성하였다. 또한 계족산, 식장산, 보문산, 구봉산, 계룡산, 금병산 등 시가지 주변 산에서 조망되는 시가지 전경 관리를 위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산 정상부 등 조망이 양호한 지점에 조망공간, 조망시설 등을 도입하여 대전의 조망명소로 발굴·관리하였고 대청호와 방동저수지, 금강, 노루벌은 대전을 대표하는 수변지역으로 수변 생태공원화 및 매력적인 생태관광자원으로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지역 경관관리 강화로 농촌지역의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마을의 전통과 역사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경관형성과 관리를 통해 전원적인 농촌경관특성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며 전원적인 농촌이미지를 저해하는 축사, 창고 등의 외관을 관리하고 방치된 빈집, 폐교 등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대청호반길, 산내로(산내에서 만인산옛길), 산서로, 벌곡로~장안로(장태산가는길) 등 자연경관, 가로수 등이 양호한 도로를 중심으로 주변의 자연과 어우러진 매력적인 명품 드라이브 코스를 조성하였다. 거점개발지역 및 시계지역의 경관순응형 개발 유도 방안으로 계룡로, 계백로, 북유성대로, 금산로, 산내로, 대둔산로, 옥천로의 시계지역은 주변 자연경관을 고려하고 세종시, 청주시, 공주시, 계룡시, 금산군, 옥천군 등 시외지역과 경관적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였고 역사문화자원 유지·강화 방안으로 유희당(무수동 일원), 이사동일원, 질현성 일원을 중심으로 역사문화 특성을 강화하였다.

2.7 전주시 경관계획10)



Fig. 14. Jeonju forest green area landscape plan

전주시의 경관권역은 산림녹지권역, 시가지권역, 문화산업권역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경관 미래상인 '역사를 담은 자연과의 통행이 시작되는 곳,'전주'를 구현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산림녹지권역의 기본방향으로 주요 산림 및 농경지는 자연특성을 보존하도록 하며, 자연과 시가지 연결부, 타 도시와의 인접 경계부가 잘 어우러지도록 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인공경관을 최소화하도록 하였고 전주시 어디서나 조망되는 산림녹지 배경경관을 보존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요 자연자원으로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조망을 확보하였다. 산림녹지권역의 세분화 계획으로 전주시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녹지권역의 각 유형에 맞게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해 세분화하였고 세분화 한 소권역은 모악산 산림녹지권역, 고덕산 산림녹지권역, 경작지 산림녹지권역 3개의 소권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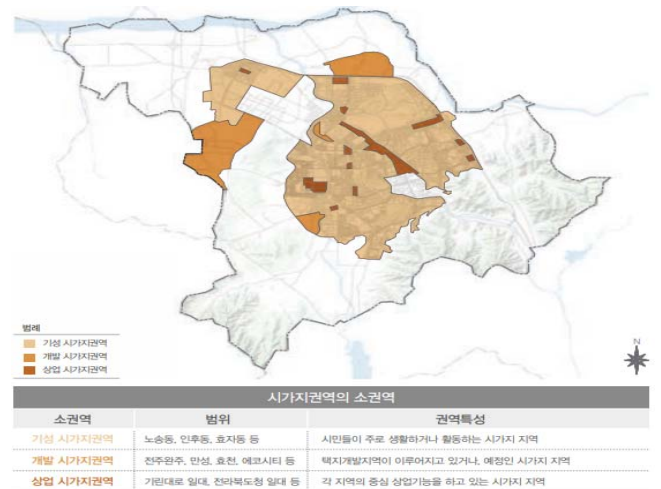


Fig. 15. Jeonju urban area landscape plan

10) 경관권역계획, 전주시기본경관계획

시가지권역의 기본방향으로 주요 자연자원과 연결하는 시가지경관을 조화롭게 경관이 형성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인접시와의 경계에 있는 주거지의 상호 조화로운 경관이 연출되도록 하였다. 또한 풍부한 녹지경관 연출 및 오픈스페이스의 확보로 휴식과 여가공간을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도시민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신규 개발지의 주변과 조화되는 경관을 형성하였다. 시가지권역 세분화계획으로 전주시 중심부에 해당하는 시가지권역의 각 유형에 맞게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하여 세분화하였고 세분화한 소권역은 기성 시가지권역, 개발 시가지권역, 상업 시가지권역으로 3개의 소권역으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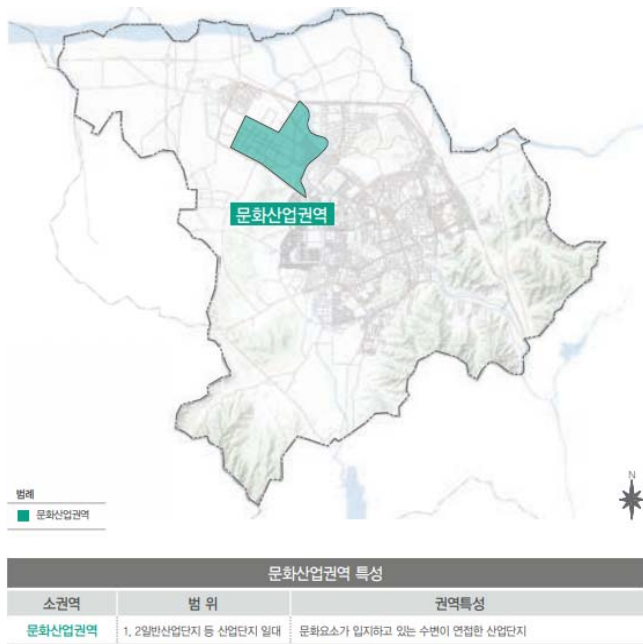


Fig. 16. Jeonju cultural industry area landscape plan

전주 문화산업권역의 기본방향으로 주변의 연결한 지역 경관과 조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기존 산업시설물들의 폐쇄적인 환경을 개선하여 경관을 완화하였다. 또한 폐산업 건축물과 문화요소의 연계로 산업단지 이미지를 개선하였고 산업지역 내 문화자원 발굴과 공공공간 확보로 공공성을 확보하였으며 활용 가능한 특정경관 요소를 발굴하여 지역 내 개성있는 산업시설 경관을 창출하였다.

2.8 소결

전주시의 경관계획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다. 진입경관 권역은 도시의 이미지를 처음으로 전달하는 주요공간으로 경관 요소로는 전주IC, 동전주IC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경관권역은 전주IC 외에는 전반적으로 상징성이 부족한 편이다. 진입경관에서는 호남고속도로에서의 진입부인 전주IC, 서전주IC, 동전주IC가 위치하고 있으며 국도 진입부로는 국도1호선, 국도17호선, 국도21호선의 진입도로 부분이 주요 경관요소이며 지역의 처음 이미지를 담고 있다.



Fig. 17. Landscape Resource characteristics

광역 수변경관으로는 만경강과 소양천이 있으며 만경강과 도심을 관통하는 전주천, 삼천으로 풍부한 수변공간을 확보하였다. 신규개발지경관으로 에코시티와 전주완주혁신도시 등이 있으며 계획적인 경관 형성은 가능하나, 인접도시와의 부조화가 우려되었다. 광역 수변경관권역은 전주시와 완주군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만경강과 전주 중심부를 관통하는 전주천, 삼천이 있다. 전주천은 시가지의 중심을 남동에서 북서로 관통하고, 삼천은 전주시의 서부 농경지를 북방으로 흐르다가 전주천에서 삼천과 합류하여 만경강으로 흐른다.

고속도로경관으로 호남고속도로와 순천고속도로가 있으며 전주시의 도시이미지 전달력 및 확보를 하였다. 철도 경관으로 전라선과 북전주선 등이 있으며 시의 우측 외곽을 두르고 있으며, 폐철도 주변 경관 부조화 우려가 있다. 광역 산림녹지경관으로 시경계를 둘러싼 산지가 도시의 배경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고속도로경관권역은 호남고속도로로 진행 시 전주완주혁신도시를 관통하여 지나가므로 혁신도시에 대한 경관적 배려 및 관리계획이 필요한 곳이다. 순천완주고속도로는 전주의 녹지지역을 가로지르고 있어 주변 환경에 대한 경관 보존계획이 필요한 곳이다.

철도경관권역은 전라선 철도가 전주시의 북측에서 동측으로 지나가고 있는 권역으로 대부분 하천 및 녹지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녹지경관에 대한 보존계획이 필요한 지역이다. 에코시티 개발지구와 송천동이 접하고 있어 경관적 배려도 필요한 곳이다.

신규개발지경관권역은 전주시 신규 개발지인 만성도시개발구역 및 효천도시개발구역, 전주에코시티 도시개발구역이 있다. 완주군과 함께 전주의 서부지역에 전주·완주혁신도시개발 진행 중이며 현재도 거주 인구가 증가하고 택지가 개발되고 있어서 새로운 도시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

광역 산림녹지경관권역은 전라북도의 중앙부를 북동으로부터 남서로 뻗어있는 노령산맥의 지류인 기린봉, 남고산, 모악산 그리고 완산칠봉 등이 시가지의 동·남·서방에 둘러싸인 분지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Fig. 18. Plans for Jeonbuk Innovation City

전주완주혁신도시의 경우 행정구역이 전주시와 완주군에 걸쳐있으며 이는 주민 편의시설 및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서로 다른 지자체인 전주시와 완주군에 걸쳐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서비스나 시설설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질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특히 교통이 불편하며 철도교통으로 전주역을 사용하고 있으나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며 열차가 더 많아서 역인 익산역 또한 가까운 곳이 아니다. 따라서 익산역에서 혁신도시를 잇는 버스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전주시에서 도시철도가 존재하지 않아 전주 시내를 이동하려면 자가용이나 시내버스를 이용해야만 한다.

상권 또한 발달이 미약한 편으로 혁신도시가 조성된지 얼마 되지 않아 상권의 발달이 더디고 대형마트가 존재하지 않아 서부신시가가지까지 위치한 대형마트(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으로 이동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백화점도 존재하지 않아 멀리 시내에 있는 롯데백화점으로 가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역세권 개발방향은 단순히 물리적 측면이 아닌 다각도의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완주군 인근의 역세권을 개발하여 새로운 경제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토지이용의 새로운 계획을 통하여 역세권 정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상점가의 활성화가 제일 중요하다.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정비 및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특색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옥외광고물의 종류, 형태, 색채, 재료, 조명, 수량, 설치위치 등을 점검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성시가지의 오래된 건물, 좁은 도로와 열악한 가로환경 및 좁은 주차장 등의 낙후된 문제를 역세권 정비를 통하여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역세권은 역의 경제적·상업적 영향력이 미치는, 전철역이나 철도역을 중심으로 인원 및 물자 수송뿐만 아니라 주거, 숙박, 상업업무 등의 특수기능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지방도시의 도시재생 및 신도시들의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3. 분석 및 종합

3.1 경관계획의 유형화

지방도시의 기본경관계획을 확인한 결과 도심경관, 자연경관 등 구역별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기본경관계획 요소

들이 있었으며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요소들을 유형화할 수 있었다. 이는 경관계획의 유형화와 계획 설정에 관한 선행 연구¹¹⁾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선행연구 <Table5>와 <Table6>의 내용을 바탕으로 <Table7>의 본 연구 기준을 마련하였다. 경관계획의 내용을 지구단위계획과 경관설계 지침이라는 법적 측면에서 먼저 유형화를 하였고<Table 4>, <Table 5> 그 다음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관유형을 도출할 수 있었다.<Table 6>

Table 5. District Unit Plan Landscape Plan Relations

구분	경관목표	내용 분류	선행 연구 해당	비고
지구 단위 계획	건축물	층수, 스카이라인, 랜드마크, 통경축, 지붕형태	●	
		건축선, 획지구묘, 건축물 형태, 주동형태, 아케이드 등		
		외관, 색채, 출입구, 경계부, 외부공간, 조경, 공개공지, 야간경관, 광고물, 아케이드 가로의 연속성, 보행자 전용도로 등		
	옥외 광고물	종류, 형태, 색채, 재료, 조명, 수량, 설치위치 등	●	
	공공 시설물	안내표지판, 가로시설물, 가로등, 포장패턴, 휴지통, 사인, 교량, 옹벽, 지역 랜드마크	●	
색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테마색, 지붕색, 사용색 범위	●		
오픈스페이스	공원조성, 도입시설, 식재원칙, 광장조성, 공공조경 및 환경친화 요소계획관	●		
경관 설계 지침	경관축형성	역사적 가로, 상징가로	-	상위 계획 해당
	권역별경관	적용기준, 지역성, 테마, 이미지 구현 모티브, 건축이미지 특화, 스카이라인, 건축물 배치 형태, 조경, 색채지침	-	상위 계획 해당
	건축 유형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건축물	●	
	색채	주변색채의 파악, 기본방향 및 지침	●	
경관 설계 지침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식재, 수경시설, 포장, 편의시설, 동선시스템, 주차장 공원	●	
	안내체계	차량, 보행자 안내체계 및 시설물 안내체계	●	
	가로시설물	휴게시설물, 위생시설물, 녹지시설물, 통행시설물 등	●	
	옥외광고물	가로형간판, 소형돌출간판, 창문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	●	
	야간경관	스카이라인, 바닥유도등, 기타외관 공공조명	-	
	주요결절부 및 랜드마크	기본방향 및 랜드마크 구상도	●	

11) 김윤진, 도시재생사업의 경관 계획요소 도출 및 중요도 분석에 관한 연구, pp.29-33.

그러나 지구단위계획과 경관설계지침에서의 경관유형화는 이론적이고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시개발사업과 접근방식이 다른 도시재생경관사업의 복합적인 특성상 모든 것을 포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도시재생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되어 뉴딜사업으로 변해가고 있지만 아직 시작수준이고 재생사업은 독립적으로 시행되기 보다는 여러 사업들과 복합적으로 계획되는 특징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도시들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이었다.

Table 6. A Study on the Types of Landscape Planning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구분	경관계획	비고	유형
지구단위 계획	건축물	채택	건축물
	옥외광고물	채택	
	공공시설물	채택	
	색채	포괄적인 요소제거	건물 외부공간
	오픈스페이스	채택	가로경관
건축유형	채택		
경관설계 지침	색채	포괄적인 요소제거	오픈 스페이스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채택	
	안내체계	유사항목으로 제거	공공시설물
	가로시설물	유사항목으로 제거	
	옥외광고물	채택	옥외광고물
	주요결절부 및 공개공지	채택 후 명칭변경 (건물외부공간)	

선행연구에서는 기준이 되는 경관유형을 경관관련 법 제도 및 계획상의 경관 계획요소를 바탕으로 표와 같이 설정하고 도시재생사업에서의 경관계획요소들을 도출하였다. 또한 도시재생 경관사업에서 시지각적으로 인지 가능한 물리적 유형을 중심으로 선별하여 최종 설정된 도시재생사업의 경관 6가지 유형을 기준으로 도시재생 사업내용이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Table 7. Urban Regeneration Standards and Local City Cases

유형	수원	구리	안성	전주
건축물	●	●	●	●
건물 외부공간	●	●	●	●
가로경관	●	●	●	●
오픈스페이스	●	●	●	-
공공시설물	●	●	●	●
옥외광고물	--	●	-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서 도출된 6가지 유형을 기준으로 지방도시의 기본경관계획을 비교분석하였으며 특히 수도권이 아닌 대표적인 지방도시인 전주 중심으로 도시의 문제점을 확인한 결과 진입경관 IC의 상징성 부족, 폐철도 주변 경관 부조화문제, 신규개발지의 인접도시와의 부조화 문제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경관계획 요소

지방도시의 경관계획에 따른 도시재생과의 관계성을 파악한 결과 대표적 지방도시인 전주시를 중심으로 진입 경관과 철도 경관, 신규개발지경관의 문제점을 확인하였으며 선행연구 및 관련자료를 통하여 역세권 재생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Fig. 19 A bird's-eye view of Jeonbuk Innovation City

전주기본경관계획을 보면 신규개발지경관으로 에코시티와 전주완주혁신도시 등이 있으나 인접도시와의 부조화가 우려되었다. 이에 따른 극복방안으로 역세권을 통한 재생 방안을 확인하였다. 역세권을 통하여 교통문제와 노후화된 기존 시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으며 관련연구¹²⁾에서는 역세권이 역세권 및 그 주변지역의 개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기능을 집적으로 극대화하여 상업, 업무 위락 등 종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역세권 재생과 관련된 국외사례를 살펴본 결과 역세권정비는 도시의 이미지 제고에 활용되고 있으며 역세권 정비를 통해 산업이나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역세권 정비는 도시공간구조의 재편의 계기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주변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계획이 나타나고 환경친화적 개발계획의 수립이 이루어지며 주변지역과의 연계교통망에 대하여 고려를 하고 있다. 또한 사람위주의 계획으로 보행교통의 네트워크화를 의도하였다.

도시의 골격을 이루는 공공공간 및 역세권 개발은 도시 경제 문화 환경 혼잡 등을 개선하고 지역 사람들의 이용을 증진하여 도시생활의 활기를 불어일키고 도시맥락 속에서 촉진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도시에서 효율성 및 인구의 다양한 활동과 중요한 기능을 위해서는 역세권 재생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제 대한 구체적 방법이 없으며 시가지개발관련법에서도 역세권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간접적으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기본경관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개별 상가에서의 옥외광고물 정비 등 법률적이고 계획적인 해결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체적인 측면에서 전주와 완주 사이에 대형마트 및

12) 이병대, 도시건축의 경관개념을 적용한 중소도시 역세권재생 모델 연구 p.44.

백화점을 공적인 차원에서 조성하고 역세권을 만든 뒤 전주역과 익산역의 철도 노선을 역세권에 맞춰서 계획 및 수정 보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주 등 지방도시의 기성 시가지가 대부분 오래된 건물 열악한 가로환경 등 도시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역세권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개선과 도시공간구조를 재편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우리나라는 경관법에 의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의하여 지방도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통합적인 측면에서 도시재생과 결부시키는 경우는 적은 편이다. 그러나 도시 전체의 차원에서 도시재생과 경관계획을 종합한다면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재생과 기본경관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할 것 과 이 경우 경관계획요소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한 내용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인 경기도 수원, 구리, 안성, 경상도 부산시, 충청도 대전시, 전라도 전주시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특히 전주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는 이 도시들이 최근에 경관계획을 수립하였고 그런 가운데 도시재생을 적용했을 때 가장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도시의 기본경관계획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다.

- 경관요소인 진입공간의 경우 대상 도시들이 전주시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전주시의 경우 진입부의 상징성이 부족한 편이었는데 고속도로를 제외하고는 철도와 도로 등의 진입요소에 대한 주변 경관 부조화, 하천 및 녹지지역의 활용에 대한 배려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신규개발지 경관과 인접도시와의 부조화문제이다. 일례로 전주의 경우 행정중심의 혁신도시와 인접도시의 교통과 경관의 연속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신도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역세권 개발방식을 제안하였다. 역을 중심으로 인원 물자 수송을 원활하게 하면서 주위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완주군 인근 역세권 개발 관련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새롭게 제안하고 기존의 경관계획에 있는 옥외광고물 정비 등을 통하여 상점가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국내 및 국외사례등을 통하여 활성화 사례를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역세권 재생방안은 도심기능의 회복을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될 것이다. 이를 기본으로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한다면 도시의 경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도시 구축의 효과가 훨씬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경관계획의 새로운 요소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도시재생을 반영한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반시민들에게 공공의 자료를 제공하여 기본경관계획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강효정, 최재필, 랜즈케이프 어바니즘 주요 개념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7(8), 2011.
2. 구리시 기본경관계획.
3. 금윤천, 도시재생사업의 경관 계획요소 도출 및 중요도 분석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4. 수원시 기본경관계획.
5. 안성시 기본경관계획.
6. 이병대, 도시건축의 경관개념을 적용한 중소도시 역세권재생 모델연구, 공주대학교대학원, 2010.
7. 이수현, 도시재생사업의 경관 계획요소에 관한 인식도 연구, 청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8. 2030 부산광역시 경관계획.
9. 2025 대전광역시 경관계획.
10. 2021 전주시 기본경관계획.

접 수 일 자 : 2020. 10. 10

초 심 완 료 일 자 : 2020. 11. 14

게 재 확 정 일 자 : 2020. 11. 21